

170cm 최준희, 42kg 인증...블랙 드레스 자태

등록 2025.12.22 17:49:16



[서울=뉴시스] 최준희. (사진=최준희 인스타그램 캡처) 2025.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배우 고(故) 최진실 딸이자 모델 최준희가 근황을 공개했다.

최준희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체중계에 찍힌 42.6kg 수치가 담겼다. 그는 "170의 연말까지 40키로대 유지시키기 성공"이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또 다른 사진에서 최준희는 블랙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했다. 그는 "연말 연초 이쁘게 보내자"라고 적으며 연말 분위기를 전했다.

최준희는 과거 루푸스 투병으로 체중이 96kg까지 늘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여름 보디 프로필 촬영을 위해 47kg까지 감량했고, 지난 3월에는 몸무게 44kg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도 체중계에 찍힌 41.9kg 수치를 인증해 화제를 모았다. 최준희의 키는 170cm다.

최준희는 지난해 8월 패션모델로 데뷔했다.

올해 2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F/W 서울패션위크 '데일리 미러(DAILY MIRROR)' 컬렉션에 서도 런웨이에 올라 워킹을 선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